

내년 1월 중기 경기전망지수 79.0p

4개월만에 80p 밑돌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하락세 전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중기 경기전망지수를 실시한 결과,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9.0으로 전월대비 4.5p 하락(전년동월 대비 14.0p 상승)했다.

이는 지난 9월(78.0) 이후 4개월 만에 80p선 아래로 하락한 수치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큰 하락폭을 보인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전산업 전체의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1월 경기전망은 83.3으로 전월대비 3.1p 하락(전년동월대비 8.0p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76.8로 전월대비 5.2p 하락(전년동월대비 17.2p 상승)했다. 건설업(74.3)은 전월대비 8.0p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77.3)은 전월대비 4.6p 하락했다.

제조업에서는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72.6-74.6), '종이및종이제품'(89.3-90.5)을 중심으로 3개 업종에서

상승한 반면, '가구'(86.7-74.8), '음료'(98.2-89.7) 등 18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82.3-74.3)이 전월대비 8.0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81.9-77.3)은 전월대비 4.6p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78.2-77.2),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0.1-65.1)을 중심으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94.1-85.8) 등 10개 업종 모두 하락했다.

수출(90.1-81.1) 전망은 상승했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94.5-94.4) 전망 또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내수(83.4-79.3), 영업이익(79.3-76.0), 자금사정(79.2-76.8) 전망이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2022년 1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 전망을 제외한 경기전망,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전망은 물론 역계열인 설비·재고·고용전망 모두 이전 3년 평

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모든 항목에서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58.3%) 비중이 가장 높았고, 원자재 가격상승(46.4%), 인건비 상승(44.9%), 업체간 과당경쟁(40.1%)이 뒤를 이었다.

주로 경영애로로 '내수부진'(57.8-58.3), '인건비 상승'(42.0-44.9), '원자재 가격 상승'(44.8-46.4) 응답 비중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반면, '업체간 과당경쟁'(41.3-40.1), '판매대금 회수지연'(19.9-18.6) 응답 비중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2021년 11월 중소기업 평균기동률은 72.0%로, 전월대비 0.5% 상승, 전년 동월대비 1.8%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67.8%, 중기업은 전월대비 0.5% 상승한 76.0%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0.4% 상승한 71.6%,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1.5% 상승한 76.4%로 나타났다. /김윤상 기자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 "좋아요"

농진청 축산과학원 해마다 실시 참여자 94.3%가 '만족'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축산 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종합상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30회에 걸쳐 한우, 젓소, 돼지, 흑염소 등 4축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상담에는 총 308 농가가 참여했다.



상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번식, 사양관리, 질병 등 분야별 축산 전문가가 함께했다.

올해 상담은 집중 상담(144농가)과 농가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 상담(124농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상담(40농가)으로 나눠 실시했다.

2021년 종합상담의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형식에 따라 집중 상담의 만족도가 93.7%로 가장 높았고, 현장 상담(96.5%), 비대면 상담(90.9%)순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지난 23일 여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찾아 관련 기관장을 만나 전남 동부권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실태와 방제현황을 점검하고, 국·시유림 구분없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동부권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0년 여주시 평여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2010년 당시 4본이 발생했으나 2021년 4월 기준 1만 9,447본으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과 전라남도도는 이러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순천국립관리소,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시와 함께 전남 동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4개 시·군 지역에 대해 국·시유림 구분없이 공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권장현 서부청장은 주기적인 방제현장 점검을 통해 방제사업 부실 설계·감리·시공을 사전 예방하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방제사업의 효과를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병홍 농진청장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방제 강화할 것"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3일 사과 농장을 방문해 앞으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에는 전국 과수 재배지를 대상으로 약제방제를 3회 이상 확대하고, 예방은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실시간 유전자 진단기술(RT-PCR)을 활용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26개 시·군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무증상 의심과수원'을 찾아내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적기방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내년 3월까지 36개 시·군 360개소에 설치한다.

박병홍 청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전에 사전예방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우리기술이 2021년 전북벤처기업 교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안전사고 없는 기자재 개발 박차"

전주대 입주기업 '우리기술', 중기부장관상 수상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우리기술이 2021년 전북벤처기업 교류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전북벤처기업 교류회는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 (사)전주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 전북 지식산업센터, 전북여성벤처기업협의

회 공동 주최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묵묵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 한 해 동안 우수 성과를 견인해 온 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리기술 김효열 대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향후 전북 경제를 견인하고 함께 성장

하는 동반자로서의 선봉장 임무를 수행하겠다"라며, "전기 기자재의 지속적인 개발과 연구를 통해 전기로 인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는 기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주대 창업보육센터 이종관 창업중점교수 "우리기술은 한국전력 배전 기자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앞으로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공로 '인정' | 민주 한병도 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을, 행정안전위원회)에게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농촌의 오랜 숙원 사항이었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큰 역할을 해주신 한병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역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으로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예전부터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올해 9월에서야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



전북농협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에게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